

‘하원테크노캠퍼스’ 배후단지 밑그림 작업 본격

서귀포시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발주… 올해 말까지 마무리
입주기업 종사자 장기체류 등 유도… 주민 의견 최대 반영

서귀포시가 ‘하원테크노캠퍼스 도시첨단산업단지’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배후단지 밑그림 작업을 시작했다.

서귀포시는 ‘하원테크노캠퍼스 도시첨단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들의 장기 체류와 안정적인 정착 유도, 기업의 인력확보 안정성 제고 등을 위한 배후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배후단지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하고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

이라고 19일 밝혔다.

서귀포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하원테크노캠퍼스 도시첨단산업단지 입주 의사가 있는 기업들의 수요를 파악하고 배후단지에 대한 콘셉트 및 개발방향을 정하는데 참고할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이를 위해 지난 14일 착수보고회를 개최, 하원마을회 등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서귀포시는 사업의 입지 적합성과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마

을회 협의, 주민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가동, 지역사회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서귀포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서귀포시 홈페이지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 읍면동에도 하원테크노캠퍼스 배후단지 조성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창구를 개설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하원테크노캠퍼스는 30만2901㎡ 규모의 산업단지로, ‘연구·제조·운영’이 결합된 우주산업 단지로 운영될 예정이다.

국내 최초 민간 위성 제조 시설인 ‘한화 제주우주센터’가 최근 준공한데 이어 제주자치도와 우주항공청은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지상시스템 구축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또한 우주·첨단기술 기업 22개가 하원테크노캠퍼스에 입주할 의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귀포시 김용탁 도시과장은 “하원테크노캠퍼스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이 서귀포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도록 성공적인 뒷받침을 위해 배후단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위영석기자 yswi1968@ihalla.com

친환경비료 지원 신청 접수

제주시가 2026년도 친환경비료 지원 사업의 신청을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이다. 제주시는 유기 인증 농가를 우선 지원하며 이어 무농약 농가, 일반 농가 순으로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1㏊당 유기인증 농가 200만원, 무농약 농가 150만원, 일반 농가 75만원이다. 농가당 최대 3㏊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농가에서 부담해야 하는 자부담 비율은 40%다. 지원 품목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밭효액비 등 유기농업 자재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월동무 수확철… 분주한 농촌 19일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한 농경지에서 농민들이 월동무를 수확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브로콜리 우수 조생 품종 육성 ‘속도’

농기원, 2계통 농가 실증 선발… 우수종 출원 추진

제주 기후에 적합하고 품질이 좋은 브로콜리 품종에 대한 출원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브로콜리 주산지 농가에서 실시한 실증 시험을 통해 수확기가 빠르고 겉은무늬병에 강하며 상품성이 우수한 브로콜리 2계통을 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주는 전국 브로콜리 재배 면적

의 약 74%를 차지하는 국내 최대 주산지로 꼽힌다. 2024년 기준 브로콜리 재배 면적 1188㏊, 생산량 1만140t에 이른다.

도 농업기술원은 2022년 개발·보급한 만생종 ‘삼다그린’에 이어 조생 브로콜리 품종 육성을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지난해 자체 선발한 3계통(제주Br-9호, 10호, 11호)

을 대상으로 제주시 애월읍 지역 농가 2곳에서 실증 시험을 벌였다.

실증 결과 ‘제주Br-10호’와 ‘제주Br-11호’는 수확기, 병 발생률, 상품성, 수량 특성을 기준 품종과 비교·분석할 예정이다. 도 농업기술원 측은 “실증 시험을 거친 뒤 가장 우수한 1계통을 최종 선발해 2027년 국립종자원에 품종보호출원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품질·수량이 우수한 브로콜리 신품종의 지속적인 출원을 통해 재배 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장점이 확인됐다.

도 농업기술원은 올해 추가 농가 실증 시험을 통해 선발된 2계통의 수확기, 병 발생률, 상품성, 수량 특성을 기준 품종과 비교·분석할 예정이다. 도 농업기술원 측은 “실증 시험을 거친 뒤 가장 우수한 1계통을 최종 선발해 2027년 국립종자원에 품종보호출원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품질·수량이 우수한 브로콜리 신품종의 지속적인 출원을 통해 재배 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진선희기자

제주TP·제주대학교 ‘풋감’ 공동연구 결과

“혈당·체중 조절 효능 확인”

풋감 추출물로 특허 출원
“비만 관리 제품 개발 가능”

제주 갈웃 염색 소재로 알려진 풋감에 혈당과 체중을 조절하는 효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테크노파크(제주TP) 청정 바이오사업본부 생물종다양성연구소는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부해진 교수 연구팀과 공동으로 풋감 추출물의 혈당 조절 효능을 확인하고 ‘미성숙 감 추출물을 포함하는 당뇨병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 특허를 출원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연구에 따르면 풋감 추출물을 이용한 당뇨 유발 동물 모델 실험 결과 공복 혈당을 감소시키고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는 효과를 보였다.

연구진은 이를 두고 ‘풋감이 당뇨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TP는 특히 출원에 대해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체지방 감소 개별인정형 원료로 심사 중인 풋감을 활용해 체중 조절만이 아니라 혈당 조절 기능을 겸비한 복합 기능성 건강기능식품 개발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

특히 제주에서 나는 소재를 활용해 전국 최고 수준을 나타내는 비만율을 관리할 수 있는 제품 개발이 가능해진 점에 주목했다.



갈웃 염색 소재로 알려진 풋감에 혈당과 체중을 조절하는 효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를 활용해 전국 최고 수준을 나타내는 비만율을 관리할 수 있는 제품 개발이 가능해진 점에 주목했다.

풋감은 특유의 땅은맛 때문에 일반적인 섭취는 어렵다. 하지만 민간요법에서는 고혈압과 중풍의 치료·예방, 다이어트 개선 등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전해져 왔다.

제주TP 측은 “이번 특허 기술과 그동안 보유한 특허를 적극 활용해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식품(메디컬푸드) 등 제주 생물 자원 기반 산업 육성을 본격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TP 생물종다양성연구소는 제주도의 지원을 받아 제주산천연물 활용 식품 소재 개발 연구를 진행해 지금까지 특허 138건을 등록했고 기업 등에 이전된 특허는 53건에 달한다.

진선희기자

블루베리 등 과수농가 시설 현대화 지원

제주시 이달 26일까지

제주시가 블루베리 등 과수 재배 농가의 시설 현대화를 지원한다. 올해 ‘기타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에 4억1700만원을 투입 한다.

이 사업은 고품질 과실 생산의 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가능 시설은 비상 발전기, 자동 개폐기, 관수 시설, 농산물 운반 시설, 무인 방제 시설, 환풍기 등 11개 품목이다.

농업경영체로 등록돼 있으면서 기타과수 재배 면적 1000㎡ 이상이고,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미만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단,

FTA 기금 사업의 지원을 받는 키워 농가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총 사업비의 보조 비율은 60%로, 나머지 40%는 농가가 부담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이달 26일 까지다. 농가에선 재출 서류를 갖춰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과수는 감귤과 같은 도내 주요 재배 과수 외에 나머지 과수를 말한다. 대표적으로는 키위와 블루베리가 있으며 백향과(파션후르즈), 용과, 단감, 매실, 자두, 체리 등도 재배되고 있다. 2024년 12월 기준 제주시 지역 기타과수 농가는 411곳이며, 전체 재배 규모는 203㏊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국립종자원 인증 '무병묘' 생산업체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푸른지게장원농장

< 무병묘 >

2025년 도내 최초!
무병묘 총 3만주
농가 보급

< 도내 / 국내육성 품종 >

도내 육성: 우리향 / 달코미 / 레드스타 / 맛나봉
 국내 육성: 미래향 / 사라향 / 하례조생 등등

도내 육성 품종은 제주도에서만 재배 가능합니다.
 위 품종들은 통상실시 완료된 업체에서만 판매 가능합니다.

< 포트묘 >

도내 최대 <포트묘> 생산
 천혜향 / 레드향 / 한라봉 / 궁천 / 흥진 / 금귤
 유라조생 / 하귤 / 팔삭 / 자몽 / 레몬 외 다수 품종

증사업 등록번호
 제18-제주-2022-20-02
 제주시 조천읍 북선로 100-29 / 조천읍 선흘리 3083, 2995-3
 (사)한국과수종묘협회 우수업체, 무병묘 인증업체, 통상실시 완료업체

010-4450-4316

DA IN 다인산업(주)

만감류 매달기는 다인굴고리!

매달기작업 일손을 줄이고 싶으신 분!
 더울 때 작업을 줄이고 싶으신 분!
**한번 매달면 몇 년이 속편한,
 다인‘굴고리’가 있습니다!**

굴고리의 장점

- 1. 실제 매달기 작업의 시간이 **줄어듬** → 2년 안에 인건비 절감액으로 자체구입비 회수 가능
- 2. 굴고리 작업세트로 한 번만 던져 설치하면, 3년 이상 철거 없이 매달기 고리로 **계속 활용 가능**.
- 3. 굴고리 작업세트는 언제든 미리 설치 가능. 즉, 더워지기 전, 덜 바쁠 때, 인력 쉽게 구할 수 있을 때 언제든 미리 작업해 둘 수 있음.
- 4. 고정판을 이용하여 높이조절이 쉬움.
- 5. 수확 후 회수도 간편.

굴고리+고정판+안파밴드를 세트로 구입해 사용합니다. 나무 1개에 4-6세트 사용됩니다.

굴고리에 밴드끈의 한쪽을 묶고, 반대쪽에 고정판을 묶은 후 설치해 매달기 고리로 활용합니다.

굴고리 작업세트 구성

054-652-3725
www.dainfine.com